

집단음악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부적응 행동,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효과

서 종 미(명지대학교 박사수료) · 한 유 진(명지대학교 교수)

I. 문제제기 및 선행연구 고찰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 구조의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가정환경의 변화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정환경의 변화는 유아들에게 정서적 완충역할의 부재와 형제간 경쟁의 부재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유아들의 사회성 및 정서조절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보육기관에서 부적응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유아들은 가정을 떠나 처음으로 보육기관에서 가정을 떠나 집단 경험을 하게 되며 교사,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이루어 간다.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보육기관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유아의 비율은 전체의 약 15%에 이르며(Hughes, 1979), 보육기관에 들어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유아들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avis, 1998). 국내의 경우도 일반유아의 약 10%정도가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홍강의 외, 1991), 몇몇 연구에서는 5-30%로 보고되기도 한다(황혜정, 1994). 그러나 보육기관에서의 부적응 유아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과 중재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교사들도 유아들의 외현적인 문제행동들로 인해 그들에게 온정적인 관심과 지도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오히려 거부적이거나 무시하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하게 된다. 또한 많은 교사들이 부적응 유아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박선숙, 1999) 외부의 지원체계는 충분하지 않다. 가정에서도 유아들의 부적응 행동에 대해 일시적인 행동으로 인식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적절한 지도 보다는 꾸짖고 비난하는 등 실제로 부적응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늦어지게 되면 이는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일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영향을 준다(남소현, 김영희, 2000). 이에 유아들의 부적응 행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들에게 맞는 치료적 개입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예방적 차원에서의 심리적 개입도 요구된다.

가족의 기능, 양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정서적 완충제 역할의 부재와 형제경쟁의 부재 등으로 인한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은 집단놀이치료 환경에서 많은 부분 충족될 수 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또래집단 안에서의 안정적이며 수용적인 경험을 통해 유아들은 자신의 정서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서도 인식, 조절할 수 있게 되며, 집단안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받게 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집단놀이치료는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며(권영주, 1999; 송유민, 2010; 엄미연, 2004), 유아의 스트레스 감소와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도움을 준다(정혜민, 2010). 정서조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집단 놀이치료는 유아의 정서조절, 정서인식, 또래관계 기술, 사회적 기술을 높이고 문제행동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박주희, 2012; 하영례, 2009; 황연희, 2010; Doubrava, 2005; Waliski & Carlson, 2008).

부적응 유아들은 대부분 정서조절의 어려움과 해결되지 못한 감정으로 인해 과도하게 억제하거나 외부로 폭발적인 정서표현을 하며(이지영, 권석만, 2006) 신체적, 정서적으로 긴장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집단놀이치료에 있어서의 효과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기분전환을 유도하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통해 스스로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영선, 2003) 음악을 놀이치료에 통합하고자 한다. 실제로 가장 정서적인 예술매체이며, 정서적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의 장점을 놀이치료에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를 보면 가족치료 차원에서 음악과 놀이의 통합을 연구한 김효선(2011)의 연구가 있으나 이는 한 회기 안에 놀이치료와 음악치료를 일정한 시간동안 각각 진행하는 것으로 놀이치료사와 음악치료사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각각의 매개체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놀이에서 표현되는 유아들의 정서표현과 행동조절에 음악의 치료적인 이점을 활용하는데는 구조적으로 제한점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놀이와 음악을 분리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놀이치료에 음악이 지닌 치료적인 요소 즉, 리듬, 선율, 화성, 구조, 형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정서의 촉발과 수용, 구조와 시간의 한계 경험 등을 접목하여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한다. 즉, 집단음악놀이치료는 집단놀이치료에서 보여지는 유아들의 놀이내용, 정서 상태, 움직임 등에 대해 치료사가 음악적으로 반영을 해 줌으로 유아들의 긴장완화, 활동에 대한 동기유발 및 집중, 적응적인 정서표현 등을 촉진하는 것을 중점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또한, 놀이치료의 공감, 경청, 트래킹 등의 놀이 치료자의 역할을 다양한 음악적 기법과 결합시켜 음악적으로 반영하여 접근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기관에서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집단놀이치료에 음악치료기법을 통합한 집단음악놀이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 유아의 부적응 행동, 정서조절, 사회적 관계 측면에 있어서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집단음악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유아의 부적응 행동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집단음악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집단음악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유아의 사회적 관계 특성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연구 대상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유아들로 어린이집 생활에 있어서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만4-5세의 유아들이다. 서울시 K구 B동에 속한 어린이집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지를 배부한 후 프로그램 참여의사를 밝힌 3곳(H, K, E)을 선정하였다. 그 후 어린이집 교사에게 부적응 행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 유아를 교사로부터 1차 추천받았으며, 추천받은 유아 중 부적응 행동 척도점수가 75점 이상인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어린이집 3곳의 유아들이 함께 모여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우며, 또한 8명의 유아를 2집단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은 집단의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최종적으로 H어린이집은 실험집단(총8명:남3, 여5), K어린이집은 비교집단(8명:남8, 여0), E어린이집은 통제집단(총8명:남4, 여4)에 무선 배치하였다. 집단간의 성비를 맞추려고 하였으나, K어린이집 교사와의 인터뷰 중 여자 아이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부적응 행동 점수에서도 매우 낮은 점수였다. 사전 검사에서 실험집단, 비교집단, 통제집단의 유아들의 동질성이 검증되었기에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집단에 선정된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험집단에는 집단음악놀이치료 프로그램을 6주 동안 주 2회씩 총 12회 실시하였으며, 매 회기는 40분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비교집단에 선정된 유아들을 대상으로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총 12회기 진행되었다. 통제집단에 선정된 유아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에 자유선택놀이시간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교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의 전 회기는 녹화를 하였으며, 전 회기 행동관찰을 기록하였다.

2. 사전, 사후검사 도구

1) 유아의 부적응 척도 (The Preschool Behavior Questionnaire: PBQ)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유아를 선별하기 위하여 Behar Stringfield(1974)가 개발한 ‘The Preschool Behavior Questionnaire(PBQ)’를 번안한 정영미(1996)의 척도를 수정, 보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적대·공격성, 불안·두려움, 과잉행동·산만성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부적응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α .95 이다.

2) 유아의 정서조절 척도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 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Shields와 Cicchetti(1997)의 ‘The Emotion Regulation Checklist: ERC’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RC를 유아를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한 여은진(2009)의 유아용 정서 조절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적응적 정서조절과 부정성 정서조절의 두 개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4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정서조절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적 강도나 정서표출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 α .88 로 나타났다.

3) 또래 상호작용 척도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ntt, & Sutton-Smith(1998)가 개발한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를 수정, 보완한 최혜영(2004)의 또래 상호작용 행동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행동(12문항)과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 행동(8문항)의 두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총 20문항, 4점 Likert척도로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많은 것을 의미하며,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행동이 .86 ,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행동이 .93이다.

3. 프로그램의 구성

1) 프로그램의 목적 및 내용 구성

본 연구는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집단놀이치료에 음악을 통합한 집단음악놀이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증진시켜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며,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집단음악놀이치료 프로그램은 O'Connor(1991)가 제안한 놀이치료 집단 형식과 Zimmer(2005)의 '움직임과 이완'에서 제시하고 있는 놀이 활동을 참고로 부적응 유아들의 문제 행동 감소, 정서조절과 또래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프로그램은 놀이치료 전문가 1인과 아동학 교수 1인, 놀이치료사 1인에게 본 프로그램 실시 전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이 구성된 후 음악치료를 통합하여 집단음악놀이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아동학 교수1인, 음악치료 전문가1인, 음악치료사 1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개발된 집단음악놀이치료 프로그램은 매 회기 도입, 본 활동, 이완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기(1-2회기), 중기(3-10회기), 후기(11-12회기)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전체내용은 다음 <표1>에 제시한다.

4. 자료분석

실험집단, 비교집단 및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크루스칼 윌리스(Kruskal Wallis) 검증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사전-사후 실험집단, 비교집단 및 통제집단 간 부적응 행동, 정서조절, 사회적 관계 차이 분석은 비모수검정인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실시하였다.

<표 1> 프로그램의 전체 내용

단 회 계 기	목표	내용		
		위밍업	본활동	이완
초 기	신뢰감 형성 유아의 정서표현 및 행동 탐색	이름 알기 규칙 정하기	엘리베이터 놀이	마사지하기
		허공에 낙서하기	신문지 펀치	애벌레 여행
	자신과 타인의 정서 인식	얼굴 스티커	표정 자석놀이	나는 풍선
		무슨 소리?	친구야, 앞이 안 보여	씩씩 짝이 났어요~
중 기	정서 표현 인식 및 수용 또래관계 기술	콩 주머니 전달	기분 스피드 게임	일기예보
		색깔나라	자석놀이	공주, 왕자가 되었어요.
		풍선 놀이	낙하산 놀이	피자 만들기
		로션 놀이	무 뽑기	비타민 나무여행
		비눗방울 놀이	휴지 꼬리잡기	물이 필요한 나무
10	정서조절 전략/또래관계 기술	1분 놀이	비행접시	얼음이 녹아요.
종 결	정서조절 능력 향상 /또래관계 기술 향상	올림픽 스피드	놀이극(올림픽 이야기)	바닷속 여행
		친구를 칭찬해요	주차장 놀이	활동에 대한 느낌을 노래로 만들기

Ⅲ. 연구결과

1. 프로그램 실시 후 집단음악놀이치료 집단의 부적응 행동의 변화 비교

실험집단인 집단음악놀이치료 유아의 부적응 행동은 사전-사후검사를 비교한 결과, 적대-공격성, 불안-공포, 과잉 행동-산만성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진 전체 부적응 행동 점수가 사전 91.00에서 사후 72.25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Z=-2.524, p=.012$) 집단음악놀이치료가 부적응 유아의 부적응 행동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제집단 유아의 부적응 행동은 프로그램 사전-사후검사를 비교한 결과 사전 81.13에서 사후 86.25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Z=-.2.524, p=.012$).

2. 프로그램 실시 후 집단음악놀이치료 집단의 정서 조절의 변화 비교

집단음악놀이치료집단과 집단놀이치료 집단 모두 정서조절 능력이 증가하였으나, 집단음악놀이치료 집단은 집단놀이치료 집단 보다 정서조절 능력 중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능력에 있어 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통제집단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프로그램 사전-사후검사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Z=-1.890$, $p=.059$).

<표 2> 실험집단, 비교집단 및 통제집단 내 유아의 정서조절 사전-사후검사 비교

구분	하위 영역	집단구분	사전	사후	음의 순위		양의순위		Wilcoxon	p
			M (SD)	M (SD)	평균 순위	순위합	평균 순위	순위합		
정서 조절	적응적 정서 조절	음악놀이치료	26.63 (1.41)	31.75 (2.05)	.00	.00	4.50	36.00	-2.530 *	.011
		집단놀이치료	24.75 (4.17)	26.50 (3.21)	.00	.00	4.00	28.00	-2.388 *	.017
		통제집단	26.63 (1.59)	26.62 (1.40)	1.50	1.50	1.50	1.50	.000	1.000
	부적응적 정서 조절	음악놀이치료	40.00 (2.62)	48.00 (3.25)	.00	.00	4.50	36.00	-2.552 *	0.11
		집단놀이치료	38.63 (6.32)	41.13 (7.14)	4.00	4.00	4.00	24.00	-1.703	.089
		통제집단	41.50 (3.78)	40.25 (4.62)	2.00	6.00	.00	.00	-1.604	.109
	전체	음악놀이치료	66.63 (3.662)	79.88 (4.80)	.00	.00	4.50	36.00	-2.527 *	.012
		집단놀이치료	63.38 (9.620)	67.63 (9.516)	.00	.00	4.00	28.00	-2.388 *	.017
		통제집단	68.13 (4.121)	67.38 (4.470)	2.50	10.00	.00	.00	-1.890	.059

* $p<.05$

3. 프로그램 실시 후 집단음악놀이치료 집단의 사회적 관계 변화 비교

집단음악놀이치료 집단 유아의 또래관계 능력은 사전-사후검사를 비교한 결과<표5>, 유아의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이 사전($M=8.63$)보다 사후($M=12.13$)에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Z=-2.536$, $p=.011$). 또한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이 사전($M=18.88$)보다 사후($M=12.88$)에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Z=-2.316$, $p=.021$). 반면에 통제집단 유아의 경우 오히려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은 감소하였고,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은 증가하였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집단음악놀이치료가 유아의 부적응 행동, 정서조절, 사회적 관계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피고, 집단놀이치료에 음악치료적인 요소가 통합되면서 치료적인 면에서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음악놀이치료 프로그램과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유아의 부적응 행동의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 특히, 집단음악놀이치료 집단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평균점수의 변화가 큰 점으로 보아 집단놀이치료에 음악치료적인 요소 즉, 리듬, 선율, 형식 등이 통합됨으로 유아들의 행동에 안정감과 구조화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음악치료적 활동이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권서희 2008; 김미선, 2000; 김선영, 2009; 박선영, 2000; 최은희, 2009).

둘째, 집단음악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에 유의미하게 긍정적 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음악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긍정적인 정서반응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증명되었다.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에 악기연주, 음악과 동작, 음악극 만들기 등의 활동이 음악의 구조 안에서 통합되면서 유아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안전하게 표출, 해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러한 음악적 표현이 집단안에서 수용되고 하나의 음악으로 완성되는 경험을 통해 정서적인 만족감도 증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집단놀이치료에서의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응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음악치료가 정서지능, 정서조절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연구와 일치한다(박지연, 2012; 정계숙, 이지연, 2005; 황은영, 2002; 전윤경, 2003).

셋째, 집단음악놀이치료 프로그램과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은 부적응 유아의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음악놀이치료,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 실험 전·후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이는 집단음악놀이치료와 집단놀이치료가 집단의 치료적인 요인을 잘 활용하여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음악치료가 유아의 또래 유능성(윤효진, 2008), 친사회적 행동(신민주, 2009), 사회·정서적 발달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송지연, 2002)와 일치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집단음악놀이치료 프로그램은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이 음악을 통해 표현하는 부정적 정서를 수용해 줌으로 부정적 정서의 감소를 가져와 심리적인 안정감과 부적응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특히, 놀이에 음악이 통합되면서 음악이 지닌 치료적인 요소 즉, 리듬, 선율, 화성, 구조 등이 유아들로 하여금 활동에 대한 동기유발을 강화시키며, 집중력을 증진시키며 정서적인 표현을 촉진시켜 그러한 효과를 좀 더 강화시킨 것이다. 또한 음악적인 구성과 치료사의 음악적인 표현과 반응은 집단놀이치료에서의 치료 효과를 증폭시키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집단음악놀이치료 프로그램 참여자가 8명으로 그 수가 많지 않아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유아들의 수를 확대하는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만4-5세의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유아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음악과 놀이의 특성은 어린 유아에게 국한되지 않고, 아동,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의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실시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집단음악놀이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의 부적응 행동 감소, 정서조절 증진, 사회적 관계 향상 효과를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에 정서적인 특성을 지는 음악 즉, 음악적인 구성, 치료사의 음악적인 표현과 반응을 통합한 집단음악놀이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 놀이에서의 음악 사용이 정서조절에 있어서 치료 효과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권영주(1999). 구조화된 집단놀이치료가 경계선지능 아동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선(2011). 가족놀이음악치료를 통한 부모-자녀관계 증진.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소현·김영희(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아동의 외면적·내면적 부적응행동. 한국가정학회지, 152, 199-213.
- 박선숙(1999). 유치원 부모교육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만족도 및 요구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희(2012). 집단게임놀이치료가 유아의 충동성 감소 및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유민(2010). 전통놀이를 활용한 집단놀이치료가 다문화가정 유아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미연(2004). 집단놀이치료가 한부모 가정 아동의 사회적 능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은진(2009). 유아와 어머니 정서성,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 및 유아 정서조절간의 구조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영선(2003). 즉흥연주 음악치료가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권석만(2006). 정서조절과 정신병리의 관계: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18 No.3.
- 정영미(1996). 유아의 기질과 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민(2010).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 유치원 적응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영(2004).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과 교사신념 및 교사행동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영례(2009). 집단놀이치료를 활용한 유아 사회정서적 유능감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연희(2010).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Davies, P. T., & Cummings, E. M.(1998). Exploring children's emotional security as a mediator of the link between marital of the link between marital relations and child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 124-139.
- Doubrava, D. A.(2005). The effects of child-centered group play therapy on emotional intelligence, behavior, and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alden University.
- Hughes, M., Pinkerton, G., & Plewis. I.(1979). Children's difficulties on starting infant school.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0, 187-196.
- Journal of Play Therapy*, 13(2). 53-74.
- O'Connor, K. J.(1991). The play therapy primer: An integration of theories and techniques. New York: Wiley Interscience Publication.
- Waliski, A., D., & Carlson, L. A. (2008). Group work with preschool children: Effect on emotional awareness and behavior. *Journal for Specialists in Group Work*, 33(1), 3-21.
- Zimmer, R.(2005). Bewegung und Entspannung. 김문주 역 (2007). 아동의 심리운동을 위한 움직임과 이완. 학지사.

집단음악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부적응 행동,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효과

권 혜 진(나사렛대학교 교수)

영유아교육기관은 영유아가 최초로 접하는 사회적 환경이다. 요즘 영유아는 보다 이른 나이에 영유아교육기관에 입소하며 하루 중 많은 시간을 기관에서 보내고 있다. 영유아가 가정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적응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영유아기의 부적응 문제는 학령기 및 청소년기의 부적응 문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영유아기 부적응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영유아의 부적응 문제가 나타나는 영유아교육기관 현장에서의 영유아 부적응 문제에 대한 영유아교사의 체계적 조기 개입은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고 발생한 부적응 행동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의 중재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문제제기한 대로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적응 유아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과 중재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장에서 교사들이 부적응 유아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외부의 지원체계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에서 보육현장에서의 부적응 유아에 대한 중재프로그램으로서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크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집단음악놀이치료 프로그램은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이 음악을 통해 표현하는 부정적 정서를 수용해 줌으로 부정적 정서의 감소를 가져와 심리적인 안정감과 부적응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놀이에 음악이 통합되면서 음악이 지닌 치료적인 요소가 부적응 유아의 정서조절과 사회적 관계 개선 효과를 가져왔다. 이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유아를 선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척도는 적대·공격성, 불안·두려움, 과잉행동·산만성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부적응 유아의 행동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중재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치료의 효과를 검증하였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적응 유아의 행동특성이 다양한 만큼 부적응 유아의 행동 특성별로 보다 적절한 중재프로그램에 대한 적용 및 효과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부적응 유아뿐만 아니라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예방적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다는 것도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부적응 유아뿐만 아니라 일반 유아들도 집단보육 상황에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활동으로 음악치료적 접근을 한다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셋째, 이 연구의 집단음악치료프로그램은 음악치료사가 유아들의 놀이내용, 정서 상태, 움직임 등에 대해 음악적으로 반응을 해 줌으로 유아들의 긴장완화, 활동에 대한 동기유발 및 집중, 적응적인 정서표현 등을 촉진하고 놀이치료의 공감, 경청, 트래킹 등의 놀이 치료자의 역할을 다양한 음악적 기법과 결합시켜 음악적으로 반영하여 접근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보육교사가 보육현장에서 유아들의 정서조절 및 사회적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자가 교사훈련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유아의 부적응행동이 나타나는 보육현장에서 유아와 일상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보육교사가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중재를 하게 된다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음악활동의 심리적 치유효과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악적 요소들이 특히 부정적 정서에 치유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육현장에서 음악적 요소가 지니는 심리적 치유에 대한 관심을 부족한 실정이다. 영유아 교육현장에서 음악활동이 주로 교사의 교수학습적 측면에서 접근될 뿐 부적응 영유아의 행동 지도를 위한 접근으로는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음악적 요소는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예술 경험보육과정영역의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 예술적 감상 내용범주에 포함되어있지만 심리적 치유의 측면에서의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영유아교육현장에서 음악활동의 심리적 치유 측면에 대한 재인식과 활용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